

## 보도자료

2022년 04월 24일 배포 시점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

문 의 : 부산본부 검사팀 유상인 과장 (051) 440-1005

배 포 : 경영기획본부 ESG확산팀 박지애 주임 (061) 350-1394

### 전파진흥원, 수상레저 문화에 안전을 더하다. - 「2022 부산국제보트쇼」 해상안전장비 전시·체험 프로그램 운영 -

-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(원장 정한근, 이하 'KCA')은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「2022 부산국제보트쇼」에서 해상조난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전시·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.
- 부산국제보트쇼는 국내 보트제조사업의 부흥과 해양레저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2014년부터 부산시광역시와 해양수산부 공동주최로 개최되어 왔다.  
※ 공동주관: (사)한국해양레저네트워크, (주)백스코
- KCA는 지난 2021년에 이어 안전한 수상레저 문화 정착을 위해 조난사고 대처요령 VR 콘텐츠와 조난신호 원격·자동 발사장치 SOS워치\* 등의 전시·체험 부스 등을 운영했다.  
※ KCA와 민간중소기업 공동 개발한 특허기술로 선박사고 시 조난자가 원격으로 조난신호를 보낼 수 있는 조난신호 원격 발사장치
- 이 외에도 소형 선박이나 어선에서 안전한 무선기기 사용을 위해 무선설비 허가·검사 절차 및 제한무선통신사 등의 자격취득 일정을 안내했다.
- KCA 정한근 원장은 "앞으로도 해상인명 안전을 위한 통신장비의 중요성을 알리고, 국민들의 해양안전 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것"이라고 말했다.

(사진1 설명) 조난신호 원격·자동 발사장치 SOS위치를 설명하고 있다.

(사진2 설명) 조난 시 대처할 수 있는 교육용 VR체험을 진행하고 있다.

